

2025 한국 국제 교류 계획 소감

백지유 동아시아학과 613830021

올해 석사 신분으로 한국에 7 박 6 일 동안 탐방과 교류를 진행할 수 있어 매우 기뻐다. 무엇보다도 성균관대학교에서 논문 발표를 완료했다는 점이 가장 뜻깊었다. 비록 결과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 과정을 완수하는 동안 얻은 배움과 경험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한국을 자주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 경험이기도 없다. 내가 한국과 접촉했던 가장 큰 계기는 한국 대중문화, 책을 통해 익힌 한국 역사, 수업에서 토론한 한국 관련 주제, 그리고 내 연구 대상인 박은식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점은 한류가 만들어낸 이미지와 현실 간의 거리감보다, 오히려 문화의 진실성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아마도 나에게서는 한류 이미지가 탈마법화되면서 상상 속 거리감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학교 방문 일정과 개인 일정 사이에서, 관광객과 비관광객의 역할,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시선을 오가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 문화의 진실성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늘 깊은 인상을 받는 것은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궁궐을 방문할 때, 마치 사극의 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생생한 풍경이다. 건물과 역사를 관찰하는 것 외에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곳을 찾은 다른 관광객들의 행동에도 주목하게 된다. 경복궁에는 한복을 입고 조선시대 양반처럼 차려입은 관광객들이 가득하며, 어떤 사람은 행랑 아래에서 검을 들고 역사 드라마 같은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것이 여행사의 상업적 체험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준비한 퍼포먼스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복을 입은 이들이 고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데 몰입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몰입형 체험’이 단절되어 보이는 점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발에 신겨진 운동화였다. 조선시대 사람이 되어 궁을 구경하는 듯한 ‘여유감’보다는 사진 찍는 것에 대한 더 관심 있다는 모습이 보였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한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이를테면 검은색 패딩을 입은 우리 같은 이들이 경복궁을 돌아다니면서 만들어내는 장면이었다. 이는 조선 왕궁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깨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나에게서는 이런 ‘이상한 현대인’들의 존재가 문화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부분처럼 느껴졌다. 포스트모더니즘 관광은 몰입형 체험을 통해 역사적 진실성을 추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정서와 분위기를 재현하여 참여자들에게 주관적으로 역사를 ‘가까이에서 느끼는’ 진실성을 제공하려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미지 중심의 문화 시대에서 관광객의 소비 방식은 이러한 진실성을 어느 정도 부셔진다. 관광객들은 관광 경험을 소셜 미디어와 연결하여,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올림으로써 자신의 생활, 미학,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자 한다. 궁궐 같은 장소는 웅장한 배경을 제공해 사람들이 쉽게 ‘올림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게 한다. 짧은 사진 찍는 행위는 장소를 깊이 느끼지 않아도, 그곳을 ‘소유했다’는 듯한 일시적 감각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찰은 나의 장소 체험이 어딘가에서 부서진 듯한 느낌을 주었다. 물론 나 또한 궁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 중 한 명이었지만, 인위적인 소비 패턴에 압도되기보다는 나만의 방식으로 장소 체험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그 방식은 바로 내가 입고 있던 검은색 패딩을 통해서였다. 화려한 귀족 의상이 가득한 공간에서 우리는 마치 네 마리의 검은 까마귀처럼, 추운 날씨에 두 손은 주머니 속에 넣었고, 손목에는 투명 플라스틱 우산이 걸려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고대 분위기가 가득한 궁에서 어딘가 시대 안 어울린 존재처럼 느껴졌지만, 과거와의 이러한 거리감이 오히려 진실한 ‘나’를 더 가깝게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다. 검은색 패딩은 역사적 장면을 모방하거나 의도적으로 융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만의 방식으로 장소에 개입하는 역할을 했다. 검은색 패딩은 겉으로는 고대의 몽환적 분위기를 깨뜨리는 요소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장소와 문화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어색함’, ‘불편함’, ‘새로움’이라는 주관적 경험은 현대성과 역사성 사이의 긴장에서 나만의 문화적 진실성을 발견하게 한다. 검은색 패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현실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현대인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관광객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래서 경복궁의 시각적으로 웅장한 상징성 뒤에는 진실성의 틈과 재구성의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틈에서 오는 ‘짜릿감’은 오히려 현대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또 다른 진실성을 제공하며, 우리가 장소와 문화의 관계를 재생각을 시킨다. 이를 통해 ‘실체적인’ 상상이 만들어진다. 600 년 전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내가 조선 시대의 관리였다면 상소의 길은 어떤 경로였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마음속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떠오른다. ‘불편한 옷을 입고 이런 높은 계단을 오르는 건 힘들었겠다’, ‘왕이 고소공포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황당한 상상이지만, 이는 현대인이 조선 시대로 ‘순간 이동’하여 장소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이는 단순히 이미지와 시각적 소비 문화의 표면적 체험에 머무르지 않는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 관광이 강조하는 진실성은 단순히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장면을 재구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실성은 관람자의 시선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완벽’과 ‘틈’ 속에서 느껴지는 짜릿감의 경험을 오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고대 문화의 진실성에 비해 현대 한국 문화의 진실성은 더 쉽게 체감될 수 있다. 고대 문화의 경험은 보통 명확한 상징이나 기호에 의존한다. 이러한 기호들은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특성이 특정한 역사적 분위기와 문화적 의미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의 강렬한 상징성은 체험자와 문화 사이의 거리를 만든다. 그것들이 ‘전시’의 대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들을 실제 생활의 장면이라기보다는 관람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한 문화적 표식으로 여긴다. 하지만 낙산공원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등산하고, 봉은사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향을 피우며,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 학생처럼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 등의 경험은 고대 한국 의상처럼 쉽게 분열감을 일으킬 수 있는 상징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문화는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다가온다. 그것은 과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과 습관이 문화의 일환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며, 한국인들처럼 배우고 모방함으로써 문화의 진실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주변 아시아 사람의 얼굴과 음식은 낯설지 않으며, 무엇보다 한국어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고 이상한 언어가 아니다. KBS 를 방문할 때 가이드가 우리에게 유학생인지 묻고, 이전에는 외국인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에서 우리는 ‘진짜 한국에 참여하는 것’이 외국인과 관광객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BS 방문은 문화 진실성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예였다. 함께 온 한국 가족과 부모님, 두 명 귀여운 아이들이 있어 우리가 ‘관광객’이나 ‘외국인’이라는 상징을 마주할 일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어색한 한국어로 방송인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상징적인 ‘외국인’이라는 신분 기호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의 신분

상징은 다른 관광지에서보다 강하지 않다. 아마도 이곳이 외국인들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관광지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한국 문화의 논리에 어느 정도 몰입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끼리에 한국어를 섞어 말한다거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있다. 따라서, 신분 상징이 희미해지면서 더 많은 문화 진실성을 느낄 수 있었다. 포스트모더니즘 관광이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진실성보다는, 관광객의 문화 소비 방식이 주는 불편함이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는 타자’가 우리를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다. 우리가 타자라서도 더 진실성 있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번 탐방은 나에게 마치 민족지학적 관찰과도 같았다. 곁핥기식 관광객의 시선을 벗어나, 나는 더 진솔한 한국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가 늘 추구하던 여행과 탐방의 본질은 바로 이런 ‘진정한 진실’이었다. 바쁜 대만 생활 속에서, 이번 경험은 나에게 마음의 휴식과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물론 나 역시 ‘123 ya’ 사진을 찍는 관광객의 모습도 즐긴다. 어쨌면, 힘든 생활 속에서 ‘123 ya’라는 작은 행동이 관광객 신분을 빌려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게 아닐까?